

[인도 · 남아시아 비즈니스 정보]

방글라데시 세관, 무상 통관 제도의 규칙 엄격화

방글라데시 치타곤 세관은 올해 4월 무상(無償) 통관 거래의 거래량을 전년도 수출(중량 기준)의 3분의 1으로 제한한다는 규칙(이하 3분의 1 규칙)을 정해 내부적으로 통지하고 5월에는 각 상업 단체에도 해당 규칙을 엄격히 운용할 것을 통보했다. 방글라데시 봉제품 제조 · 수출업 협회(BGMEA)를 중심으로 한 상업 단체들이, 세관에 무상 통관으로 수입한 원재료의 통관 및 인수를 신속히 집행할 것을 요구한 것이 배경이다.

사실 방글라데시에서 1993년 12월에 도입된 일시 수입 제도, 2003년 12월 봉제품 원재료 수입 제도(2015~2018 년)등에도 상기의 ‘3분의 1 규칙’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. 세관 당국은 무상 통관 거래가 부정 유출의 온상이 되는 것을 문제 삼아왔지만, 엄격하게 이를 운용하지는 않았다.

수출 물량의 100 %가 무상 통관 거래인 기업도 존재

방글라데시에 위탁 가공 무역을 할 경우 원재료 등의 수입 거래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. 하나는 물건의 흐름에 따라 신용장(L / C)에 의해 결제하는 방법(L / C 거래), 다른 하나는 원자재 및 제품을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방법(무상 통관 거래)이다.

L / C 거래는 물건의 움직임에 따라 결제를 해야 하는 반면 무상 통관 거래는 결제가 한번으로 끝난다. 또한 L / C를 개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수수료 등을 생각해도 무상 통관 거래가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. 한편, 방글라데시에서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자산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무상 통관하여 수입된 자재의 소유권은 방글라데시 기업이 가지게 된다. 따라서 무상 통관 거래는 신용도가 높은 상대와 거래에 이용하지 않으면 위험율이 높다. 해외 기업 중에는 수출의 100%를 무상 통관 거래에 의존하는 기업도 있다.

해외 기업의 비즈니스에도 영향

무상 통관 거래에 의존해온 기업은 이번 규칙이 엄격화됨에 따라 거래 방법의 재검토를 요구받고 있다. 이미 3분의 1 규칙 이상의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에서는 치타곤 항구에서 자재 수입이 금지되는 상황도 보고되고 있다. 이 경우 관세를 지불하고 수입하거나 하중 이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.

〈방글라데시 치타곤 항구 전경〉



출처 : <http://embassynvisa.com/>

자료정리: EMERiCs, 자료감수: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

※ 출처

일본무역진흥기구, 방글라데시 세관, 무상통관제도를 엄격화, 2017.08.09
<https://www.jetro.go.jp/biznews/2018/05/1752e1323f2e8df1.html>